

102cm '눈폭탄'...미국도 폭설 대란

뉴욕 등 미 동부지역 28명 사망 전기·지하철 끊겨 8천억 피해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을 마비시킨 폭설이 최소 28명의 사망자를 내고 잠잠해졌다.

경제적 피해는 최고 7억 달러(약 8500억 원)로 추산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현지시각) 오전 7시를 기해 전날 발령했던 여행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눈이 멈추자 뉴욕 주는 기차와 지하철 시스템 운영 재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지상 구간 운영을 위해 중장비와 직원들이 투입돼 작업 중이다.

하지만 뉴욕시내의 제설작업과 교통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항공사들은 뉴욕지역 공항에서 제한된 운항이라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폭설로 취소된 항공편은 700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에서 전기가 끊겼던 5만가구는 다시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저지 주의 7만여가구는 24일 오후까지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폭설로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폭설로 구급차 출동 시간이 늦어질 점도 사망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혔다.

기상정보제공업체 아쿠웨더의 집계에서 뉴욕 시 센트럴파크의 적설량은 68.1cm



그곳도 힘들죠?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을 마비시킨 폭설이 최소 28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틀만에 잠잠해졌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각)를 기해 전날 발령했던 여행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사진은 이날 뉴욕에서 긴급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금지가 풀린 뒤 한 주민이 차를 꺼내기 위해 눈을 걷어내는 모습. /연합뉴스

로 잠정 발표됐다. 이는 1869년 이후 두 번째 많은 적설량이자 사상 최고였던 2006년 2월보다 불과 0.25cm 적었다.

기상전문매체 웨더채널은 이번 폭설 때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을 웨스트버지니아 주 글렌캐리로 지목했다. 이 지역의 적설량은 101.6cm였다. AP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하퍼스 페리와 멀지 않은 지역에도 101.6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

다. 이번 폭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교통마비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3억 5000만~7억 달러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영정보 제공업체 프래나널리틱스는 소매업체나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그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 폭설 피해 지역에서의 제설작업 비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액수가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미국에서는 강추위가 국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강추위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때문에 2.1% 줄었고, 같은 해 전체의 경제성장률에도 감소 효과를 낳았다. 뉴저지 주와 메릴랜드 주의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폭설이 아닌 홍수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이란 경제개방 신호탄...대통령 유럽 순방서 佛 항공기 114대 구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첫 수혜는 유럽 항공기 제조 업체인 에어버스가 돌아갈 전망이다.

또 이번 주에 시작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유럽-이란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협력 재개를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시작되는 프랑스 파리 방문 기간 에어버스 114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각) 테헤란에서 열린 항공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한 압바스 아룬디 이란 교통장관이 밝혔다.

아룬디 장관은 첫 공급분이 이르면 다음 달 인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새로 사들이는 항공기는 모두 국영 이

란항공에서 운항하지만, 다른 기업의 항공기 구매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아룬디 장관은 말했다.

또한 아룬디 장관은 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인 보잉과는 "미국과의 협상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거래도 없다면 서도 "보잉과도 분명히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르 파크리흐 카산 부장관도 보잉에서 100대 이상을 사는 데 관심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WSJ은 이란이 보잉의 노다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시작되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이란과 유럽과의 적대 관계 종료를 알리는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의 유럽행은 1999년 당시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3월과 10월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각각 방문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로하니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유럽 재개에 대한 이란의 문호 개방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맨 먼저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경제계 대표단을 이끌고 25~26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 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란의 전통적인 경제 파트너였던 이탈리아는 에너지 업체 에니 등 자국 기업들의 이란 복귀를 바라고 있다. 이어 그는 바티칸을 방문하고, 27일 파리로 넘어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英, 음식 지원 대상 난민에

손목 밴드 착용 강제 논란

영국에서 최근 난민 신청자들을 빨간색 대문 집에 거주시킨 데 이어 식량 제공을 빌미로 손목 밴드 착용을 강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에서 지난해부터 밝은 색 손목 밴드를 차고 다니는 난민 신청자들에게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취업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다.

난민 신청자들은 손목 밴드 강제 착용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밴드 색 때문에 인종주의자들의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7 무제의 충신 광광

광광(?~BC 68)은 산서성 임부현 출신으로 한 무제 때의 정치인이다. 흉노 정벌의 영웅인 광거병의 이복동생으로 일찍부터 무제를 측근에서 섬겼다.

무제의 말년은 무고사건으로 점철되었다. 무제가 발탁한 강중은 희대의 간신배였다. 무제가 처음 그를 인견하였을 때 기이한 옷차림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감찰관으로 기용된 강중은 황제만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황태자의 심부름꾼이 거마로 달리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황태자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후환이 두려워진 강중은 황태자 무고사건을 일으켰다. 모함에 빠진 황태자 유거는 강중을 제거하고 무제에게 반기를 들었다. 황태자는 싸움에 패해 도망치다가 목을 매 자살했다.

BC 87년 무제가 오작공에서 죽었다. 8세 불능이 즉위하니 소제다. 무제

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였다. 잦은 대외 전쟁으로 재정이 거덜 난 상태다. 물가는 폭등했고 민생은 어려워졌다. BC 81년 염철 회의가 소집되었다. 철과 소금의 전매제, 군수법과 평준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BC 74년 소제가 후사 없이 죽었다. 그는 창읍왕 유하를 황제로 옹립했다. 유하는 부녀자를 희롱하고 상중에도 음주가무를 하여 조정의 신임을 잃었다. 그는 창읍왕을 폐하고 가신 200여 명을 처형했다. 창읍왕 측의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다. 한서 광광전에는 "당연히 끊을 것을 끊지 못하다가 도리어 이 난을 당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비운의 황태자 유거의 손자인 유병이 후인 황제로 선택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성장해 18세가 되었다. 하급 관리 허광현의 딸과 결혼해 아들을 두었다. 그가 23년간 재임한 명군 선제다.

3대 황제를 섬긴 한시대의 권신

는 광광, 김일제 및 삼관절 3명에게 소제의 보좌를 부탁했다. 무제는 유불능의 생모를 추살함으로써 외척의 정권 농단을 사전에 방지했다. 그녀가 광광 반대세력과 연합할 경우 왕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무제가 그녀를 죽인 것은 잔혹한 일이지만 사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소제 2년 흉노 출신의 김일제가 병사했다. BC 80년 무제의 아들인 연왕 단이 후계 체제에 불만을 품고 모반했다. 광광은 모반을 진압하고 연루된 삼관절 일족을 모반죄로 처형했다.

그는 열아홉 살에 궁에 들어가 20여 년 동안 무제를 보좌했다. 그는 실로 충직하고 부지런하며 만사에 신중을 기했다. 어느날 황궁에 번개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옥새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옥새를 관장하는 상부새랑을 불러 옥새를 내놓게 했다. 상부새랑은 "옥새를 지키는 것이 신의 직책이다. 죽어도 사사로이 옥새를 넘길 수 없다"고 저항했다. 다음날 번개가 없자 그는 상부새랑의 녹봉을 올려주며 "그대가 이처럼 옥새를 지키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의 공평무사함에 감복했다고 한다.

소제 치세의 최대 난제는 경제 위기 선제 취임후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데 그가 선제 옆자리에 앉아 수레를 몰았다. 후에 선제는 당시를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고 회고했다. 광광의 위세가 천자를 능가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제에게 계수 귀정(稽首歸政) 즉 머리를 땅에 대고 정권을 돌려드리기를 간청했다. 선제는 "대소사는 광광에게 먼저 보고한 후 결정한다"고 전권을 일임했다. BC 68년 그가 병사했다. 선제는 즉위 7년째 되자 허황후가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세웠다. 이어 신하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씨의 세력을 지방으로 전근시켜 군권을 약화시켰다. 궁지에 몰린 광씨 일족은 정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모두 추살되었다.

무제는 죽기 직전 광광이 누구를 후사로 세울 것인지 묻자 "어린 아들을 세울 것이니 당신이 주공이 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 황제를 보좌하고 국정을 살폈다. 그러나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일족이 추살되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은 "광씨 일족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광광의 충훈은 기려야만 할 것"이라고 평하였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항목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이자율	3.8~5.5%	4.0~5.5%	5.5~6.5%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혹은 7.0%)
중도 무취급 한도약정	중도 무취급 한도약정	중도 무취급 한도약정	중도 무취급 한도약정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